

다. 勿論 澗松은 그것을 言下에 拒絕했다. 一部 그 事實을 안 사람이 운데는 『보고 싶으면 와서 보아라』하는 毅然한 態度에 感激를 했다고 들었다.

여니 사람 같은면 이런 境遇 흔히 平素에 大凡했던 그의 處身에 비겨 어긋진 異和感 같은 것을 느낄 일이지마는 澗松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도무지 없으니 이는 非凡으로 通하는 거룩한 平凡의 所以일 것으로 새삼 倉洞先塋에 잠든 澗松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 澗松 追慕記

金 元 龍

一代의 古美術品 蒐藏家로서 澗松의 舍名은 일찍부터 들어왔지만 처음 澗松을 뵈이게 된 것은 一九五七年이었다. 全盛彌하면 우리같은 靑面書生은 가까이 가기도 힘든 老貴族같은 타인의 人士라고 언제나 想像해왔던 나는 처음 뵈었을때의 젊고 平民적이고 柔和한 童顏에 一驚하였다.

午後五時頃 우리가 博物館에서 退勤하려고 하기 直前에 澗松은 事務室에 이따금 나타났다. 어떤때는 大漢門 들어오는 길에서 부닥치기도 하였다. 그의 모습은 達觀, 見性하고 童心으로 돌아간 老僧과도 같았다.

타이핀없는 古色蒼然한 넥타이에 아무렇게나 洋服을 걸치고 대포한잔하자고 呵呵大笑하던 그 웃음소리를 다시는 영영 듣지 못하게 되었다. 澗松은 남을 誹謗하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僧惡과 罪惡을 모르고 자라난 꾸밈새없는 少年과 같이 아름다웠다. 나보다는 十五年이나 年長이지만은 그런 年令의 差異에는 都大體 無關心이고 무슨 同窓生같이 待하여 주셨다. 自己自身の 古美術에 對한 該博하고 深奧한 知識을 한번도 誇示해본 일 없고 누가 鑑定이나 意見を 請해도 답답해질 程度로 意見의 表明을 꺼렸다.

五年남직한 比較的 짧은 交有期間이었지만 澗松과는 여러번 會飲하였

다. 둘이서 만났을 때도 많지만 大體는 서너번이 合席하게 되는데 文化財保存會의 會議가 있는 날은 依例 몇몇이서 저녁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그것의 번번이 澗松의 負擔이 되었다. 우리들로서는 참 未安한 일이었지만 원체 食書生들이라 일일이 返禮할 道理없었고 어쩌다가 우리들이 데포한잔하면 이제는 二次會라고 또 끌려가 結局은 澗松이 또 負擔을 지게 되어 待接이 아니라 弊가 되곤 하였다.

澗松은 酒豪나 暴飲家는 아니었고 그저 愛酒家였는데 그것도 좋은 안주를 더 즐기신 것 같다. 그때 언제나 새로운 곳을 發見하고는 이번에는 아무데 가보라고 案内해주는데 和食집일 가셔도 房에 들어가 는 일 없고 반드시 「이다바」바로 옆에 앉았다. 그때야 진짜料理가 나온다는 것이다. 내가 生鮮料理를 무척 좋아 한다고 해서 和食집에는 잘 데려다 주셨고 또 「魚の料理」라는 新刊日書を 일부러 사서까지 주시며 自己가 襲擊하면 손수 生鮮회 만들어 달라고 弄삼아 말씀하시더니 襲擊한번 안하고 아무 때나 시고 말았다. 廣橋附近에 있는 新世界가 生鮮料理를 잘하기 때문에 그 집을 龍宮이라 부르며 자주 다녔는데 이렇게 生鮮 즐기다가는 죽어서 진짜 龍宮에 끌려가 되게 경질 것이라고 彼此 弄을 주고 반군 하였다. 더구나 自己가 먼저가서 龍王을 잘 사귀어 두었다가 金元龍이 나중에 끌려오면 잘 봐주라 말해주겠다고 언제나 弄談하셨는데 이제 眞談이 된 것 같아 가슴 아프고 虛無한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다.

澗松이 平生에 蒐集한 것 以外에 過眼하게된 古美術品の 數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特別 書畫의 境遇가 貴重해 澗松 書畫過眼錄같은 것을 적어 두시라고 모두 懇請하였었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李朝 繪畫史의 돌도 없는 좋은 資料가 되었을것인데 그것도 미처 着手 못하시고 不歸의 客으로 되셨다.

이제는 그 書籍과 書畫가 堆積한 舍廊房에서 新收品을 가운데 놓고美를 즐기며 琥珀의 香酒를 즐기며 絶絶 웃는다. 시던 澗松을 다시는 못보게 되었다. 그 웃음소리, 貴公子 같은 면서 어린이 같은 그 千萬金짜리 微笑가 귀에 새롭고 눈에 친한데 바로 그 분이 北風부는 倉洞山기슭 地下에 홀로이 누워 계시다니 이게 都大體 어찌된 일일까.